

제 25-02호

2025. 03. 10



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

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

책임작성

노민선 연구위원

(02-707-9843 / msnoh@kosi.re.kr)

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
Korea SMEs & Startups Institute

※ KOSI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
(www.kos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목 차

1. 서론
2. 중소기업 고용 실적
3. 중소기업 고용 전망
4. 시사점

요 약

< 필요성 및 목적 >

-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
-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2024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
- 경기 둔화와 경제심리 위축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 존재
-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최근 10년간 고용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, 2025년도 고용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< 중소기업 고용 실적 >

-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,54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.0%를 차지
 -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85.7%를 차지하고,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중소기업(70.9%)이 대기업(94.0%) 대비 23.1%p 낮은 수준
 -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
-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중(48.6%*)은 대기업(26.4%) 대비 22.2%p 높으며, 최근 10년간 10.6%p 증가
 - * 생산연령인구(15~64세)의 50세 이상 비중(36.1%) 대비 12.5%p 높은 수준
- 대출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(34.3%)이 대기업(66.3%) 대비 32.0%p 낮은 수준
-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21.5만명('22)에서 20.2만명('24)으로 '23년부터 감소

< 중소기업 고용 전망 >

- 기업 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의 28.9%*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, 많다는 대답은 3.2%에 불과했음
 - * 부족기업 비중은 전문인력(37.0%)이 일반인력(21.9%) 대비 15.1%p, 소기업(32.0%)이 중기업(23.4%) 대비 8.6%p, 혁신형 기업(34.9%)이 일반 기업(24.8%) 대비 10.1%p 각각 높게 나타남
- 2025년도 인력수급 환경에 대해 중소기업의 24.4%가 작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은 3.6%에 그쳤음
- 중소기업의 44.4%*는 2025년도 채용계획이 없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
 - * 채용계획이 없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 비중은 29인 이하 소기업 (50.1%)이 30 ~ 299인 중기업 (34.1%) 대비 16.0%p 높게 나타남

< 시사점 >

- 임금근로자는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하고,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은 수준
 - ⇒ (과제)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, 비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자로의 재취업 지원 강화
- 중소기업의 채용 계획이 부정적이고,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
 - ⇒ (과제) 중소기업 청년 채용 활성화,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지원 강화,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선제 대응 지원,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년 이후 계속 고용 활성화
- 중소기업은 고학력 취업자 비중이 낮고, 전문인력 활용에 어려움 존재
 - ⇒ (과제) 직업계고를 졸업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후학습 지원 강화,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 활성화
- 경기 침체 국면에서 종사자 규모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
 - ⇒ (과제) 대-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확대,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,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,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지원 예산 편성 및 대기업 플랫폼과의 연계 확대

01 | 서론

가. 필요성 및 목적

◆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: 2.2%('24.5월) → 2.1%('24.12월) [0.1%p ↓]
- 국제통화기금(IMF) : 2.2%('24.10월) → 2.0%('25.1월) [0.2%p ↓]
- 한국개발연구원(KDI) : 2.0%('24.11월) → 1.6%('25.2월) [0.4%p ↓]
- 한국은행 : 1.9%('24.11월) → 1.5%('25.2월) [0.4%p ↓]

◆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2024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

- '25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*는 코로나19 시기인 '21년 2월 이후 47개월 만에 60대로 하락 (중소벤처기업부·중소기업중앙회)
* 78.4('24.10월) → 77.1(11월) → 72.6(12월) → 68.1('25.1월) → 67.5(2월)
- '25년도 중소기업의 R&D투자 지수(RSI)는 88.0('24.11월)에서 73.8*(12월)로 감소했으며, 대·중견기업 대비 낮은 수준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* 중견기업(85.6) > 대기업(80.3) > 중소기업(73.8)

◆ 경기 둔화와 경제심리 위축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 존재

- '24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.2만 명 감소했으며, 코로나19가 한창이던 '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에 마이너스 기록(통계청)
- '25년 1월 워크넷 구인배수*(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)는 1월 기준 '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(고용노동부)
* 0.50('24.9월) → 0.49(10월) → 0.46(11월) → 0.40(12월) → 0.28('25.1월)

◆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최근 10년간 고용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, 2025년도 고용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-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,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나. 분석 개요

< 고용 실적 >

◆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- (유형) 「통계법」상 지정통계
 - 1963년부터 작성한 고용노동 관련 대표적인 통계이며, 약 3.6만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
- (방법)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(MicroData Integrated Service, MDIS) 활용
- (내용) 종사자 규모, 종사자 지위, 성, 연령, 교육정도, 업종
- (기간) 2014 ~ 2024년

◆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기업부설연구소 총괄 현황

- (유형)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,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 통계
- (내용)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요원 등록인원 수
- (기간) 2014 ~ 2024년

< 고용 전망 >

◆ 중소기업 고용 이슈 설문조사

- (대상) 업력 7년 이상인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89개사
 - * 95% 신뢰수준, 허용오차 $\pm 4.04\%p$ 이내
 - (종사자 규모) 5 ~ 29인 : 375개사(63.7%) / 30 ~ 299인 : 214개사(36.3%)
 - (소재지) 수도권 : 308개사(52.3%) / 비수도권 : 281개사(47.7%)
 - (업종) 제조업 : 322개사(54.7%) / 서비스업 : 267개사(45.3%)
 - (유형) 혁신형(벤처/이노비즈/메인비즈) : 238개사(40.4%) / 일반형 : 351개사(59.6%)
- (방법)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, 이메일, 팩스 조사
- (내용) 인력부족 여부, 인력수급 환경 변화('25 ~ '26), 신규채용 규모('25)
- (기간) 2025. 2. 11(화) ~ 2. 27(목)

02 | 중소기업 고용 실적¹⁾

가. 개요

◆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,54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.0%를 차지

- 중소기업 취업자 수(만명) : 2,359.2('14) → 2,543.0('24) [연평균 0.8% ↑]
-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: 91.1%('14) → 89.0%('24) [2.1%p ↓]

◆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4.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.0%를 차지

- 대기업 취업자 수(만명) : 230.5('14) → 314.6('24) [연평균 3.2% ↑]
- 대기업 취업자 비중 : 8.9%('14) → 11.0%('24) [2.1%p ↑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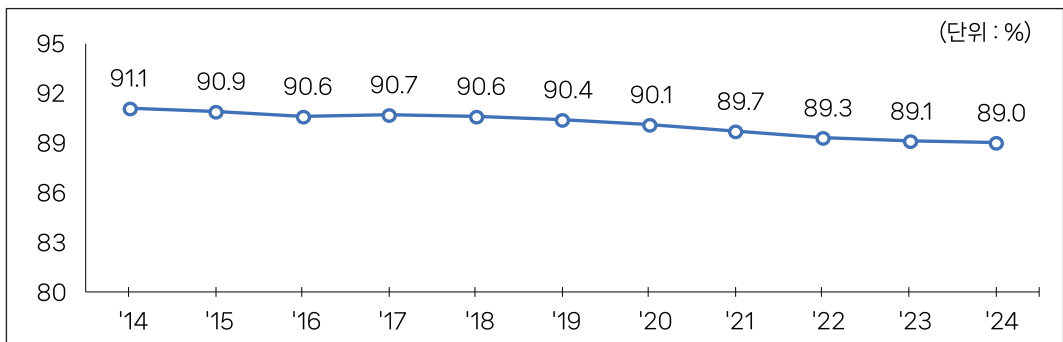
표 1 취업자 현황(규모별)

(단위: 천명(%))

구 분	2014	2019	2024	CAGR('14~'24)
300인 미만	23,592(91.1)	24,529(90.4)	25,430(89.0)	0.8%
300인 이상	2,305(8.9)	2,594(9.6)	3,146(11.0)	3.2%
합 계	25,897(100)	27,123(100)	28,576(100)	1.0%

* 주: 수치는 반올림함

그림 1 전체 취업자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



* 주: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

1)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

나. 종사자 지위별

< 임금근로자 >

◆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는 1,889.7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85.7%를 차지

-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수(만명) : 1,665.3('14) → 1,889.7('24) [연평균 1.3% ↑]
-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70.9%로 대기업(94.0%) 대비 23.1%p 낮은 수준
-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비중 : 87.8%('14) → 85.7%('24) [2.1%p ↓]

◆ 대기업의 임금근로자는 314.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.3%를 차지

- 대기업 임금근로자 수(만명) : 230.5('14) → 314.6('24) [연평균 3.2% ↑]
- 대기업 임금근로자 비중 : 12.2%('14) → 14.3%('24) [2.1%p ↑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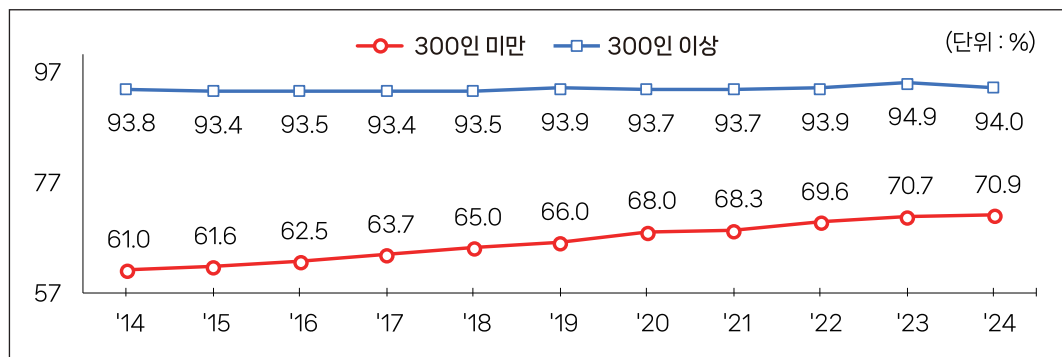
표 2 취업자 현황(임금근로자)

(단위: 천명(%))

구 분	2014	2019	2024	CAGR('14~'24)
300인 미만	16,653(87.8)	17,846(87.3)	18,897(85.7)	1.3%
300인 이상	2,305(12.2)	2,594(12.7)	3,146(14.3)	3.2%
합 계	18,959(100)	20,440(100)	22,043(100)	1.5%

* 주: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, 수치는 반올림함

그림 2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



* 주: 상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1년 이상인 자를 의미

< 비임금근로자 >

◆ 자영업자는 565.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.8%를 차지

• 자영업자 수(만명) : 572.0('14) → 565.7*('24) [연평균 0.1% ↓]

* 560.6('19) → 551.3('21, 최저치) → 563.2('22) → 568.9('23) → 565.7('24)

• 자영업자 비중 : 22.1%('14) → 19.8%('24) [2.3%p ↓]

◆ 무급가족종사자*는 87.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.1%를 차지

*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무보수로 주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

• 무급가족종사자 수(만명) : 121.9('14) → 87.6('24) [연평균 3.3% ↓]

•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: 4.7%('14) → 3.1%('24) [1.6%p ↓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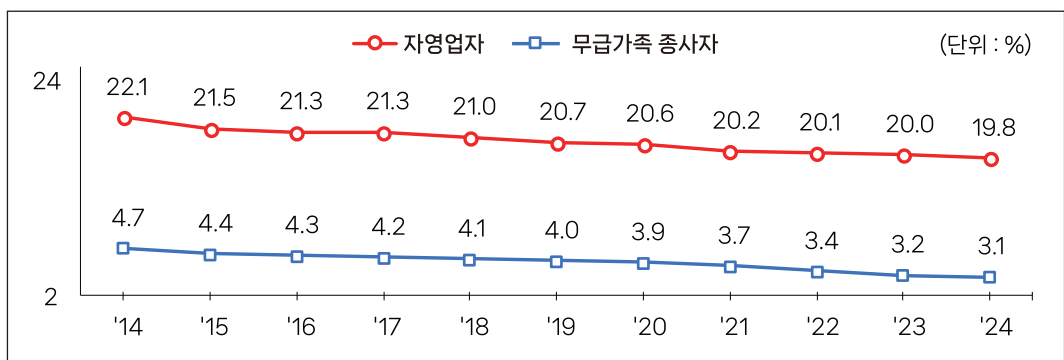
표 3 취업자 현황(비임금근로자)

(단위: 천명(%))

구 분	2014	2019	2024	CAGR('14 ~ '24)
자영업자(A)	5,720(22.1)	5,606(20.7)	5,657(19.8)	△0.1%
[고용원 有]	[1,581(6.1)]	[1,538(5.7)]	[1,432(5.0)]	[△1.0%]
[고용원 無]	[4,139(16.0)]	[4,068(15.0)]	[4,225(14.8)]	[0.2%]
무급가족종사자(B)	1,219(4.7)	1,077(4.0)	876(3.1)	△3.3%
비임금근로자 수(A+B)	6,939(26.8)	6,683(24.6)	6,533(22.9)	△0.6%
전체 취업자 수	25,897(100)	27,123(100)	28,576(100)	1.0%

* 주: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을 의미하며, 모든 수치는 반올림함

그림 3 전체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중



다. 연령별

◆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773.4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30.4%*를 차지

* 생산연령인구(15~64세)의 39세 이하 비중(42.0%) 대비 11.6%p 낮은 수준

- 39세 이하 취업자 비중 : 35.5%('14) → 30.4%*('24) [5.1%p ↓]

* 39세 이하 : (중소) 30.4% < (대) 46.7% [16.3%p ↓ **]

** 29세 이하 : 1.9%p ↓ (12.9~14.8) / 30~39세 : 14.4%p ↓ (17.5%~31.9%)

◆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,236.4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48.6%를 차지

* 생산연령인구(15~64세)의 50세 이상 비중(36.1%) 대비 12.5%p 높은 수준

-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: 38.0%('14) → 48.6%*('24) [10.6%p ↑]

* (중소) 48.6% > (대) 26.4% [22.2%p ↑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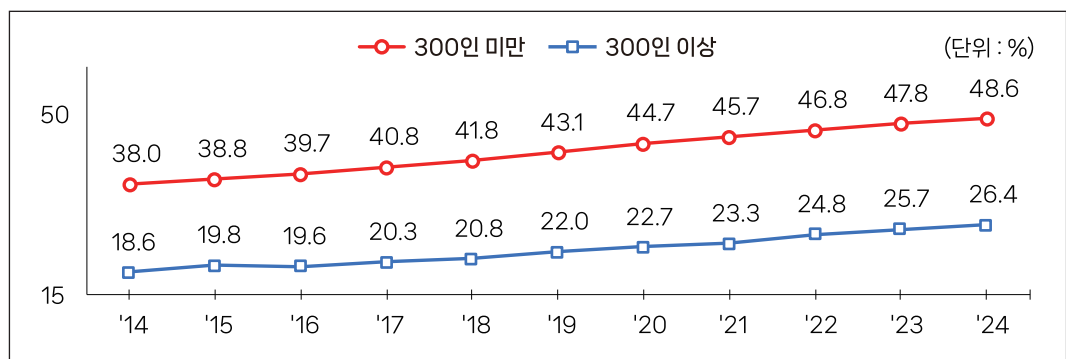
표 4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(연령별)

(단위: 천명(%))

구 분	2014	2019	2024	CAGR('14~'24)
29세 이하	3,387(14.4)	3,526(14.4)	3,290(12.9)	△0.3%
30~39세	4,989(21.1)	4,629(18.9)	4,444(17.5)	△1.2%
40~49세	6,250(26.5)	5,799(23.6)	5,332(21.0)	△1.6%
50세 이상	8,966(38.0)	10,575(43.1)	12,364(48.6)	3.3%
합 계	23,592(100)	24,529(100)	25,430(100)	0.8%

* 주: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, 수치는 반올림함

그림 4 전체 취업자 대비 고령 취업자 비중



라. 성별

◆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는 1,152.7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45.3%*를 차지

* 생산연령인구(15~64세)의 여성 비중(49.3%) 대비 4.0%p 낮은 수준

- 여성 취업자 수(만명) : 1,020.3('14) → 1,152.7('24) [연평균 1.2% ↑]
- 여성 취업자 비중 : 43.2%('14) → 45.3%*('24) [2.1% ↑]

* (중소) 45.3% > (대) 35.8% [9.5%p ↑]

◆ 중소기업의 남성 취업자는 1,390.3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54.7%*를 차지

* 생산연령인구(15~64세)의 남성 비중(50.7%) 대비 4.0%p 높은 수준

- 남성 취업자 수(만명) : 1,338.8('14) → 1,390.3('24) [연평균 0.4% ↑]
- 남성 취업자 비중 : 56.8%('14) → 54.7%*('24) [2.1% ↓]

* (중소) 54.7% < (대) 64.2% [9.5%p ↓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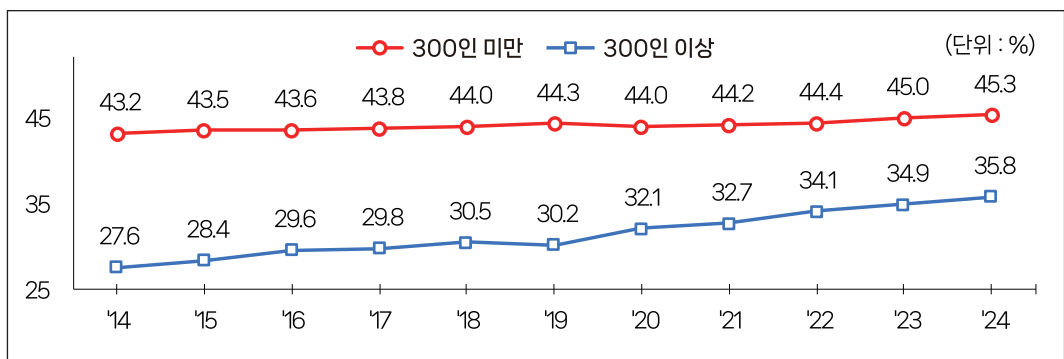
표 5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(성별)

(단위: 천명(%))

구 분	2014	2019	2024	CAGR('14~'24)
여 성	10,203(43.2)	10,876(44.3)	11,527(45.3)	1.2%
남 성	13,388(56.8)	13,652(55.7)	13,903(54.7)	0.4%
합 계	23,592(100)	24,529(100)	25,430(100)	0.8%

* 주: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, 수치는 반올림함

그림 5 전체 취업자 대비 여성 취업자 비중



마. 교육정도별

◆ 중소기업의 고졸 이하 취업자는 1,315.1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51.7%를 차지

- 고졸 이하 취업자 수(만명) : 1,412.4('14) → 1,315.1('24) [연평균 0.7% ↓]
- 고졸 이하 취업자 비중 : 59.9%('14) → 51.7%*('24) [8.2% ↓]
- * (중소) 51.7% > (대) 19.9% [31.8%p ↑]

◆ 중소기업의 대졸 이상 취업자는 871.6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취업자의 34.3%를 차지

- 대졸 이상 취업자 수(만명) : 637.9('14) → 871.6('24) [연평균 3.2% ↑]
-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: 27.1%('14) → 34.3%*('24) [7.2% ↑]
- * (중소) 34.3% < (대) 66.3% [32.0%p ↓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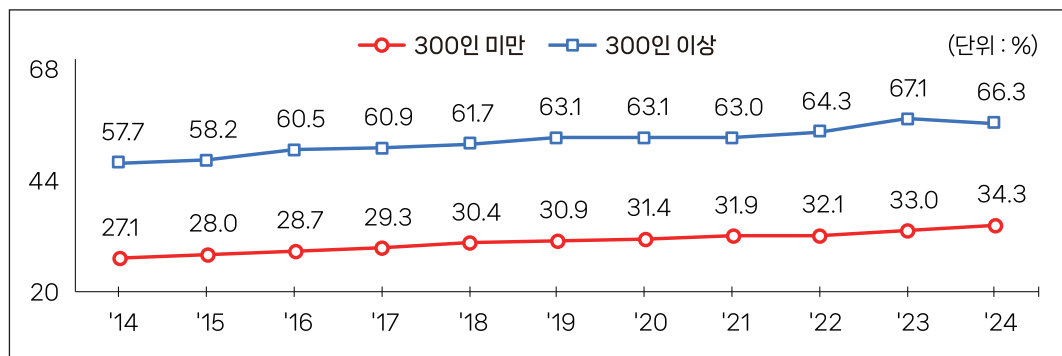
표 6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(교육정도별)

(단위: 천명(%))

구 분	2014	2019	2024	CAGR('14~'24)
고졸 이하	14,124(59.9)	13,664(55.7)	13,151(51.7)	△0.7%
전문대 졸업	3,090(13.1)	3,296(13.4)	3,564(14.0)	1.4%
대학교 졸업	5,604(23.8)	6,635(27.0)	7,678(30.2)	3.2%
대학원 졸업	775(3.3)	934(3.8)	1,038(4.1)	3.0%
합 계	23,592(100)	24,529(100)	25,430(100)	0.8%

* 주: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, 수치는 반올림함

그림 6 전체 취업자 대비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



바. 업종별

◆ 중소 제조업 취업자는 354.5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13.9%를 차지

- 제조업 취업자 수(만명) : 369.0('14) → 354.5('24) [연평균 0.4% ↓]
- 제조업 취업자 비중 : 15.6%('14) → 13.9%*('24) [1.8% ↓]
- * 기타 업종(14.5%) 대비 0.6%p 낮은 수준이며, '19년부터 기타 업종 대비 낮아짐
- * (중소) 13.9% > (대) 28.9% [15.0%p ↓]

◆ 중소 서비스업 취업자는 1,818.8만 명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71.5%를 차지

- 서비스업 취업자 수(만명) : 1,639.0('14) → 1,818.8('24) [연평균 1.0% ↑]
-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: 69.5%('14) → 71.5%*('24) [2.0% ↑]
- * (중소) 71.5% > (대) 68.1% [3.4%p ↑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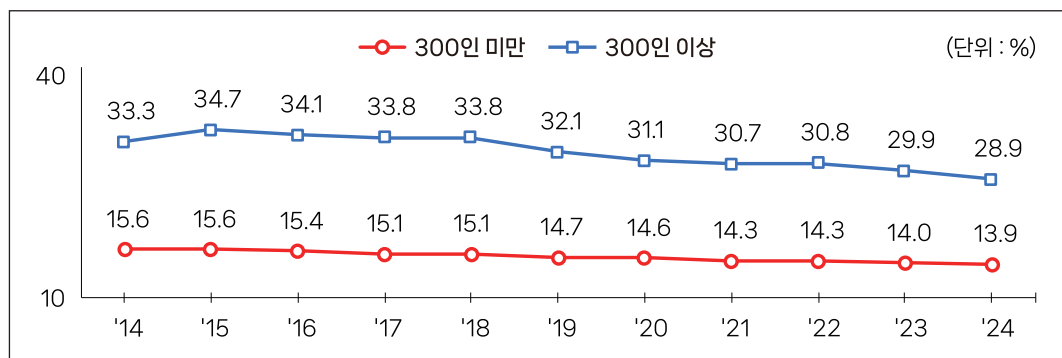
표 7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(업종별)

(단위: 천명(%))

구 분	2014	2019	2024	CAGR('14~'24)
제조업(C)	3,690(15.6)	3,596(14.7)	3,545(13.9)	△0.4%
서비스업(G~U)	16,390(69.5)	17,299(70.5)	18,188(71.5)	1.0%
기타(A·B·D·E·F)	3,512(14.9)	3,633(14.8)	3,698(14.5)	0.5%
합 계	23,592(100)	24,529(100)	25,430(100)	0.8%

* 주: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대분류 기준.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, 수치는 반올림함

그림 7 전체 취업자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중



<참고> R&D인력²⁾**◆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수는 20.2만 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49.4%를 차지**

• 중소기업 연구원 수(명) : 192,420('19) → 201,644('24) [연평균 0.9% ↑]

* 214,642명('22) → 213,031명('23) → 201,644명('24) ('23년부터 감소)

• 중소기업 연구원 비중(%) : 57.0('19) → 49.4*('24) [7.6%p ↓]

* '18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, '24년도에 대·중견기업보다 연구원 수가 적어짐

◆ 대기업과 중견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
• 연평균 연구원 수 증가율('19~'24) : (중견) 11.5% / (대) 5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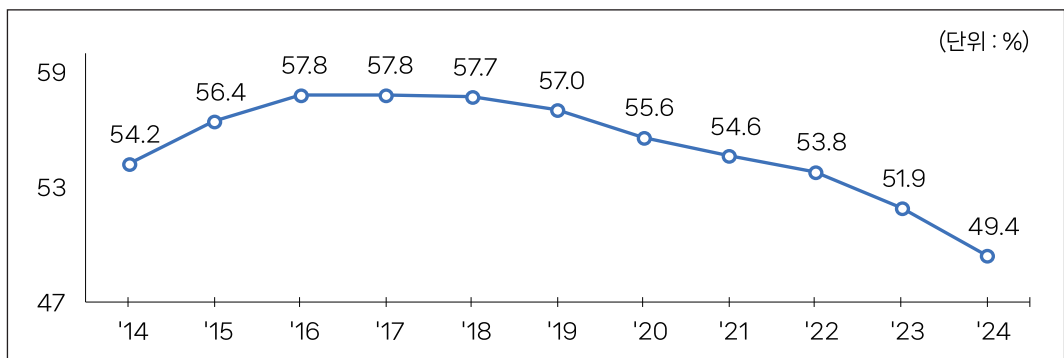
• 연구원 비중 증가폭('19~'24) : (중견) 4.3%p ↑ / (대) 3.2%p ↑

표 8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현황(규모별)

(단위: 명(%))

구 분	2019	2022	2023	2024
중소기업	192,420(57.0)	214,642(53.8)	213,031(51.9)	201,644(49.4)
중견기업	34,140(10.1)	50,505(12.7)	55,268(13.5)	58,919(14.4)
일반 대기업	110,860(32.9)	133,519(33.5)	142,216(34.6)	147,281(36.1)
합 계	337,420(100)	398,666(100)	410,515(100)	407,844(100)

* 주: 수치는 반올림함

그림 8 전체 연구원 대비 중소기업 연구원 비중

* 주: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을 의미

2) '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기업부설연구소 총괄 현황'의 연구전담요원 등록인원을 분석한 것임. 정부는 「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하고 조세, 인력, 자금 등을 지원함.

03 | 중소기업 고용 전망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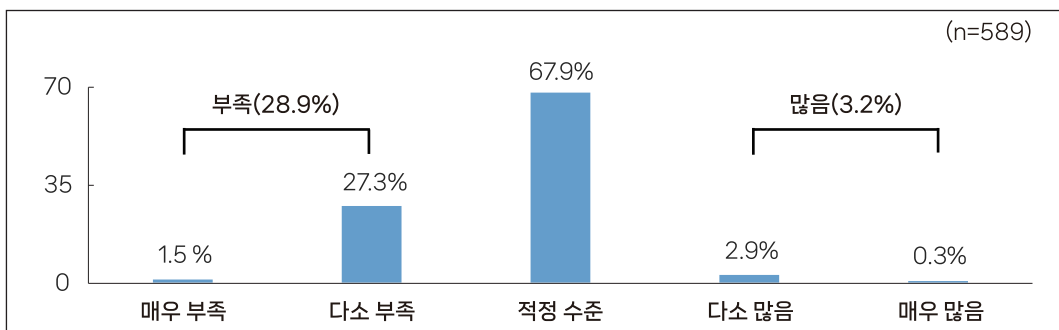
가. 인력 규모

< 종합 >

◆ 중소기업의 인력 수는 기업 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상황

- 부족하다는 응답은 28.9%로 나타났으며, 많다는 대답은 3.2%에 불과했음
- 적정 수준(100) 기준 환산지수는 86.6으로 조사됨(낮을수록 부족 현상 심화)

그림 9 중소기업 인력 규모 평가



* 주: 수치는 반올림함

◆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전문인력이 일반인력 대비 크게 나타남

- 부족기업 비중 : 전문인력(37.0%) > 일반인력(21.9%)
- 환산지수(적정 수준=100) : 전문인력(80.2) < 일반인력(90.3)

표 9 중소기업 인력 규모 평가(수준별)

(단위: 개사(%))

구 분	부 족	적정 수준	많 음	합 계	환산지수*(100)
일반인력	129(21.9)	439(74.5)	21(3.6)	589(100)	90.3
전문인력	218(37.0)	366(62.1)	5(0.8)	589(100)	80.2
전 체	170(28.9)	400(67.9)	19(3.2)	589(100)	86.6

* 주: 매우 부족(0), 다소 부족(50), 적정 수준(100), 다소 많음(150), 매우 많음(200)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수치를 평균하여 계산

3) 2025. 2. 11(화)~27(목)까지 업력 7년 이상인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8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임
(95% 신뢰수준, 허용오차 ± 4.04%p 이내)

< 기업 특성 >

◆ (종사자 규모) 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중기업 대비 크게 나타남

- 부족기업 비중 : 5 ~ 29인(32.0%) > 30 ~ 299인(23.4%)
- 환산지수(적정 수준=100) : 5 ~ 29인(84.7) < 30 ~ 299인(90.0)

◆ (소재지) 수도권 인력 부족이 비수도권 대비 다소 크게 나타남

- 부족기업 비중 : 수도권(29.2%) > 비수도권(28.5%)
- 환산지수(적정 수준=100) : 수도권(85.7) < 비수도권(87.5)

◆ (업종)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력 부족은 비슷하게 나타남

- 부족기업 비중 : 제조업(29.8%) > 서비스업(27.7%)
- 환산지수(적정 수준=100) : 제조업(86.8) > 서비스업(86.3)

◆ (유형) 혁신형 기업의 인력 부족이 일반 기업 대비 크게 나타남

- 부족기업 비중 : 혁신형 기업(34.9%) > 일반 기업(24.8%)
- 환산지수(적정 수준=100) : 혁신형 기업(84.5) < 일반 기업(88.0)

표 10 중소기업 인력 규모 평가(특성별)

(단위: 개사(%))

구 분		부 족	적정 수준	많 음	합 계	환산지수 ¹⁾
종사자 규모	5 ~ 29인	120(32.0)	244(65.1)	11(2.9)	375(100)	84.7
	30 ~ 299인	50(23.4)	156(72.9)	8(3.7)	214(100)	90.0
소재지	수도권	90(29.2)	213(69.2)	5(1.6)	308(100)	85.7
	비수도권	80(28.5)	187(66.5)	14(5.0)	281(100)	87.5
업 종	제조업	96(29.8)	212(65.8)	14(4.3)	322(100)	86.8
	서비스업	74(27.7)	188(70.4)	5(1.9)	267(100)	86.3
유 형	혁신형 ²⁾	83(34.9)	143(60.1)	12(5.0)	238(100)	84.5
	일반	87(24.8)	257(73.2)	7(2.0)	351(100)	88.0
전 체		170(28.9)	400(67.9)	19(3.2)	589(100)	86.6

* 주: 1) 매우 부족(0), 다소 부족(50), 적정 수준(100), 다소 많음(150), 매우 많음(200)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수치를 평균하여 계산

2) 혁신형 기업은 벤처, 이노비즈(기술혁신형), 메인비즈(경영혁신형) 중 1개 이상을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

3) 수치는 반올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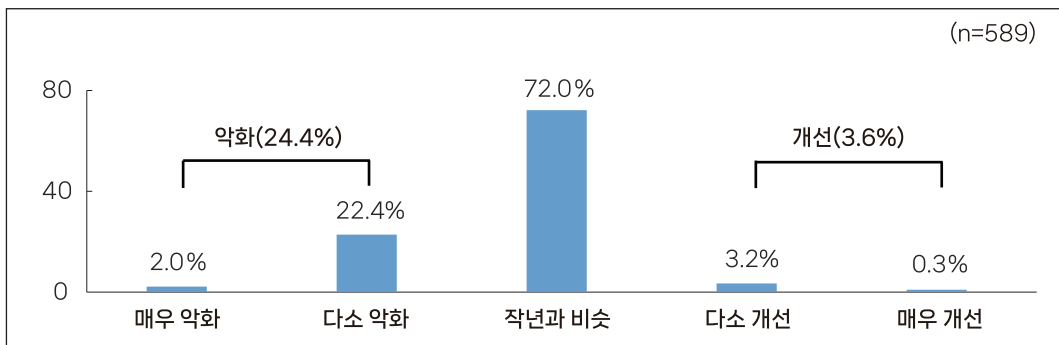
나. 인력수급 환경

< 종합 >

◆ 중소기업의 2025년도 인력수급 환경은 작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

-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4.4%로 나타났으며,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은 3.6%에 불과했음
- 작년(100) 기준 환산지수⁴⁾는 88.7로 조사됨(낮을수록 악화 현상 심화)

그림 10 중소기업 인력수급 환경 변화 전망(202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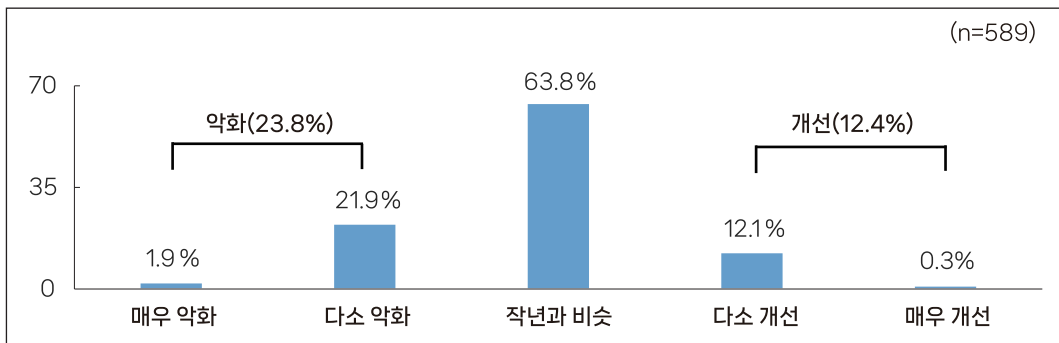


* 주: 수치는 반올림함

◆ 중소기업의 2026년도 인력수급 환경은 올해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

-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(23.8%)은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(12.4%) 대비 높게 나타남
- 작년(100) 기준 환산지수는 93.5로 조사됨(낮을수록 악화 현상 심화)

그림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환경 변화 전망(2026년)



* 주: 수치는 반올림함

4) 매우 악화(0), 다소 악화(50), 비슷(100), 다소 개선(150), 매우 개선(200)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수치를 평균하여 계산

< 2025년 >

◆ (종사자 규모) 중기업의 인력수급 환경 악화 비중이 소기업 대비 높게 나타남

- 악화기업 비중 : 5 ~ 29인(22.4%) < 30 ~ 299인(28.0%)
- 환산지수(작년과 비슷=100) : 5 ~ 29인(89.9) > 30 ~ 299인(86.7)

◆ (소재지) 비수도권의 인력수급 환경 악화 비중이 수도권 대비 높게 나타남

- 부족기업 비중 : 수도권(21.8%) < 비수도권(27.4%)
- 환산지수(작년과 비슷=100) : 수도권(90.9) > 비수도권(86.3)

◆ (업종) 제조업의 인력수급 환경 악화 비중이 서비스업 대비 높게 나타남

- 부족기업 비중 : 제조업(26.7%) > 서비스업(21.7%)
- 환산지수(작년과 비슷=100) : 제조업(88.2) < 서비스업(89.3)

◆ (유형) 혁신형 기업의 인력수급 환경 악화 비중이 일반 기업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

- 부족기업 비중 : 혁신형 기업(26.1%) > 일반 기업(23.4%)
- 환산지수(적정 수준=100) : 혁신형 기업(88.4) < 일반 기업(88.9)

표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환경 변화 전망(2025년, 특성별)

(단위: 개사(%))

구 분		악 화	적정 수준	개 선	합 계	환산지수 ¹⁾
종사자 규모	5 ~ 29인	84(22.4)	276(73.6)	15(4.0)	375(100)	89.9
	30 ~ 299인	60(28.0)	148(69.2)	6(2.8)	214(100)	86.7
소재지	수도권	67(21.8)	228(74.0)	13(4.2)	308(100)	90.9
	비수도권	77(27.4)	196(69.8)	8(2.8)	281(100)	86.3
업 종	제조업	86(26.7)	221(68.6)	15(4.7)	322(100)	88.2
	서비스업	58(21.7)	203(76.0)	6(2.2)	267(100)	89.3
유 형	혁신형 ²⁾	62(26.1)	163(68.5)	13(5.5)	238(100)	88.4
	일반	82(23.4)	261(74.4)	8(2.3)	351(100)	88.9
전 체		144(24.4)	424(72.0)	21(3.6)	589(100)	88.7

* 주: 1) 매우 악화(0), 다소 악화(50), 작년과 비슷(100), 다소 개선(150), 매우 개선(200)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수치를 평균하여 계산

2) 혁신형 기업은 벤처, 이노비즈(기술혁신형), 메인비즈(경영혁신형) 중 1개 이상을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

3) 수치는 반올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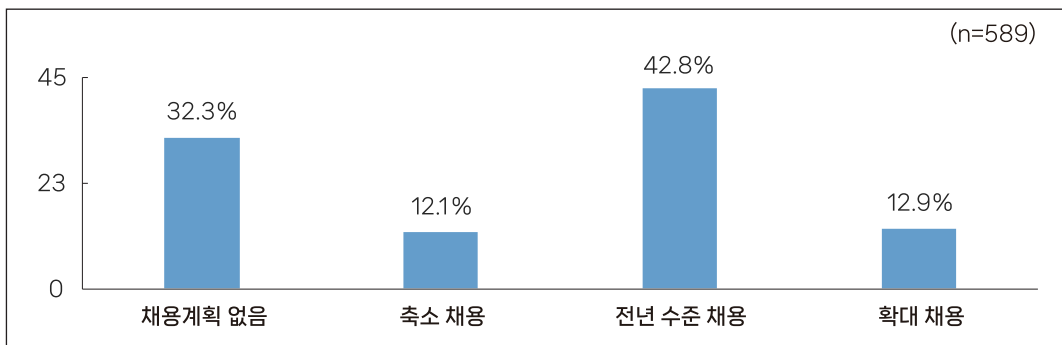
다. 2025년 신규 채용

< 종합 >

◆ 중소기업의 32.3%가 2025년도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

- 채용계획이 없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44.4%로,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대답(12.9%) 대비 높게 나타남

그림 12 중소기업의 2025년 신규 채용 규모(전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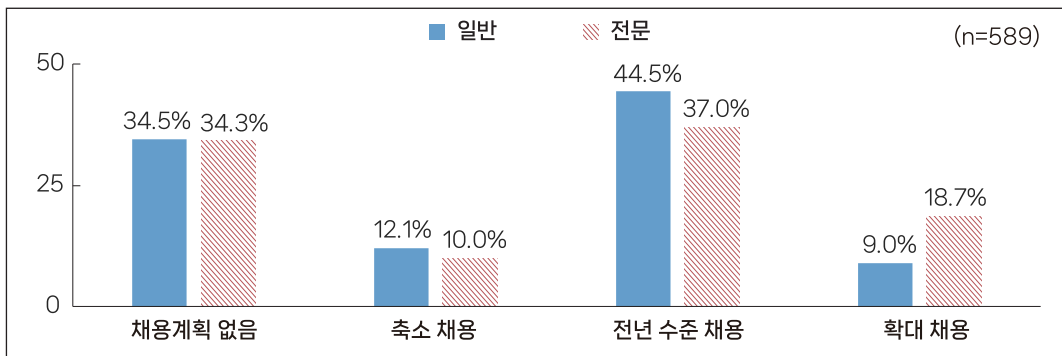


* 주: 수치는 반올림함

◆ 중소기업의 2025년 신규 채용 수요는 전문인력이 일반인력 대비 크게 나타남

- 채용계획이 없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일반인력이 46.6%(34.5+12.1)로 전문인력 44.3%(34.3+10.0)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
-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전문인력(18.7%)이 일반인력(9.0%) 대비 높게 나타남

그림 13 중소기업의 2025년 신규 채용 규모(수준별)



* 주: 수치는 반올림함

<기업 특성>

◆ (종사자 규모) 소기업은 2025년 신규 채용을 중기업 대비 보수적으로 계획

-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 축소 : 5~29인(50.1%) > 30~299인(34.1%)
- 채용 확대 : 5~29인(14.9%) > 30~299인(9.3%)

◆ (소재지) 수도권은 2025년 신규 채용을 비수도권 대비 보수적으로 계획

-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 축소 : 수도권(49.7%) > 비수도권(38.5%)
- 채용 확대 : 수도권(12.0%) < 비수도권(13.9%)

◆ (업종) 서비스업은 2025년 신규 채용을 제조업 대비 보수적으로 계획

-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 축소 : 제조업(42.4%) < 서비스업(46.8%)
- 채용 확대 : 제조업(13.7%) > 서비스업(12.0%)

◆ (유형) 일반 기업은 2025년 신규 채용을 혁신형 기업 대비 보수적으로 계획

-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 축소 : 혁신형 기업(39.9%) < 일반 기업(47.3%)
- 채용 확대 : 혁신형 기업(18.9%) > 일반 기업(8.8%)

표 12 중소기업 신규 채용 규모(2025년, 특성별)

(단위: 개사(%))

구 분		채용계획 없음	축소 채용	전년 수준 채용	확대 채용	합 계
종사자 규모	5~29인	144(38.4)	44(11.7)	131(34.9)	56(14.9)	375(100)
	30~299인	46(21.5)	27(12.6)	121(56.5)	20(9.3)	214(100)
소재지	수도권	108(35.1)	45(14.6)	118(38.3)	37(12.0)	308(100)
	비수도권	82(29.2)	26(9.3)	134(47.7)	39(13.9)	281(100)
업 종	제조업	105(32.6)	31(9.6)	142(44.1)	44(13.7)	322(100)
	서비스업	85(31.8)	40(15.0)	110(41.2)	32(12.0)	267(100)
유 형	혁신형 ¹⁾	63(26.5)	32(13.4)	98(41.2)	45(18.9)	238(100)
	일반	127(36.2)	39(11.1)	154(43.9)	31(8.8)	351(100)
전 체		190(32.3)	71(12.1)	252(42.8)	76(12.9)	589(100)

* 주: 1) 혁신형 기업은 벤처, 이노비즈(기술혁신형), 메인비즈(경영혁신형) 중 1개 이상을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

2) 수치는 반올림함

04 | 시사점

< 고용구조 개선 >

◆ (시사점) 임금근로자는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하고,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은 수준

- 임금근로자의 중소기업 비중은 87.8%('14) → 85.7%('24)로 감소
 -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: (중소) 70.9% < (대) 94.0%
-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감소
 -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 : 5.7%('19) → 5.0%('24) [0.7%p ↓]
 -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: 15.0%('19) → 14.8%('24) [0.2%p ↓]
-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
 - 자영업자 비중 : (한) 19.8%, (영) 13.3%, (프) 12.6%, (독) 8.2%, (일) 7.4% 등
 -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: (한) 3.1%, (일) 1.8%, (영, 프, 독) 0.3%, (미) 0.1%

표 13 전체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중 국제 비교

(단위: %)

구 분	한국('24)	미국('23)	일본('24)	영국('23)	프랑스('23)	독일('23)
자영업자	19.8(9위)	6.0	7.4	13.3	12.6	8.2
무급가족종사자	3.1(4위)	0.1	1.8	0.3	0.3	0.3

* 주: 1) 한국과 일본은 2024년, 나머지 국가는 2023년 기준 괄호안의 수치는 OECD 국가 중 순위를 의미

2) 영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에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을 차감하여 계산

* 자료: 통계청(2025), 日本 總務省統計局(2025), OECD 통계를 참고하여 정리

◆ (정책방향) 임금근로자 취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비임금근로자 구조 개선 촉진

-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
 - 월 1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임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1년간 차등 지원*
 - * (예) 월 10만원 ~ 20만원 미만 증가: 월 40만원, 월 20만원 ~ 40만원 미만 증가: 월 60만원, 월 40만원 이상 증가: 월 80만원 지원
-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지원 강화
 -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전직교육 강화 및 전직 성공 시 장려수당 확대
 -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

< 인구구조 변화 대응 >

◆ (시사점) 중소기업의 채용 계획이 부정적이고,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

- 중소기업의 44.4%가 2025년도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을 축소할 계획
-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35.5%('14) → 30.4%('24)로 감소
 - 청년 취업자 비중은 중소기업(30.4%)이 대기업(46.7%) 대비 16.3%p 낮은 수준
 - 대-중소기업 간 청년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에서 30~39세로 넘어가면서 확대*
 - * 29세 이하 : 1.9%p ↓ (12.9-14.8) / 30~39세 : 14.4%p ↓ (17.5-31.9)
- 50세 이상 고령 비중은 38.0%('14) → 48.6%('24)로 증가
 - 고령 취업자 비중은 중소기업(48.6%)이 대기업(26.4%) 대비 22.2%p 높은 수준
 - 대-중소기업 간 고령 비중 차이는 최근 10년간 확대*
 - * 고령 비중 차이(중소-대) : 19.4%p ↑ (38.0-18.6)('14) → 22.2%p ↑ (48.6-26.4)('24)

◆ (정책방향) 중소기업의 청년 및 고령 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

- 중소기업 청년 채용 활성화
 - 취업 단계별(상담→일경험→취업→적응)로 청년 대상의 맞춤형 연계 지원
 - 중소기업 및 구직인력 관련 DB를 연계하고, 상호 매칭 기능 강화
 -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관철은 중소기업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 바로알기 노력 강화
-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지원 강화
 - 육아휴직급여, 워라밸일자리 장려금, 유연근무 장려금 등 일-생활 균형 지원금액을 종사자 규모별*로 차등 적용(예: 29인 이하, 30~299인, 300인 이상 등)
-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선제 대응 지원
 - 고령자 세제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(조세특례제한법)
 - * 통합고용세액공제(법 §29의8)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(§30) 등
 - 재취업지원 패러다임을 경력재설계로 전환하고, 중소기업 내 활동 지원 강화
-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년 이후 계속 고용 활성화
 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소기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조정

< 전문인력 활용 >

◆ (시사점) 중소기업은 고학력 취업자 비중이 낮고, 전문인력 활용에 어려움 존재

-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(34.3%)은 대기업(66.3%) 대비 32.0%p 낮은 수준
-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21.5만명('22) → 20.2만명('24)으로 '23년부터 감소
- 인력부족 중소기업 비중은 전문인력(37.0%)이 일반인력(21.9%) 대비 높은 수준

◆ (정책방향) 중소기업의 재직자 재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채용 지원

- 직업계고를 졸업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후학습 지원 강화
 -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 확대, 근속과 연계한 자기주도형 학위 취득 지원
-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 활성화
 - 석·박사 연구원 신규 채용 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(조세특례제한법 §10)
 -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지역 및 제조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
 - 대·중견기업 퇴직 전문인력의 체계적 활용체계 구축

< 상생경영 활성화 >

◆ (시사점) 경기 침체 국면에서 종사자 규모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

- 인력부족 기업 비중 : 5~29인(32.0%) > 30~299인(23.4%)
- '25년 채용계획이 없거나 축소 계획 비중 : 5~29인(50.1%) > 30~299인(34.1%)
-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비중은 63.3%('20) → 60.6%('23)로 2.7%p, 복지비용 비중은 43.2%('20) → 34.8%('23)로 8.4%p 감소(고용노동부)

◆ (정책방향) 대·중소기업 간, 중소기업 노·사 간 상생경영 지원 정책 활성화

- 대기업 등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대·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확대
-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(10%→25%)하고,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(조세특례제한법)
-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, 대기업과의 연계 확대

참고자료

[국내 문헌]

고용노동부(2025), 「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」.
 고용노동부(각연도), 「기업체노동비용조사」.
 고용노동부(각연도)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 한국은행(2025), 「경제전망(2025년 2월)」.
 중소벤처기업부·중소기업중앙회(각연도), 「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」.
 통계청(각연도)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 한국개발연구원(2025), 「KDI 경제전망(수정)」.
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각연도), 「기업부설연구소 총괄 현황」.

[외국 문헌]

日本 總務省統計局(2025), 「労働力調査 2024年(令和 6年) 結果」.
 IMF(2024), 「World Economic Outlook」.
 IMF(2025), 「World Economic Outlook Update」.
 OECD(2024a), 「OECD Economic Outlook(volume 2024, Issue 1)」.
 OECD(2024b), 「OECD Economic Outlook(volume 2024, Issue 2)」.

[인터넷 자료]

OECD Statistics, [https://data-explorer.oecd.org/vis?lc=en&df\[ds\]=dsDisseminateFinalDMZ&df\[id\]=DSD_ALFS%40DF_ALFS_EMP_ICSE93&df\[ag\]=OECD.SDD.TPS&df\[vs\]=1.1&dq=.EMP..N..TY_GE15_T%2BICSE93_1%2BICSE93_2T3%2BICSE93_5_T.A&lom=LASTNPERIODS&lo=5&to\[TIME_PERIOD\]=false](https://data-explorer.oecd.org/vis?lc=en&df[ds]=dsDisseminateFinalDMZ&df[id]=DSD_ALFS%40DF_ALFS_EMP_ICSE93&df[ag]=OECD.SDD.TPS&df[vs]=1.1&dq=.EMP..N..TY_GE15_T%2BICSE93_1%2BICSE93_2T3%2BICSE93_5_T.A&lom=LASTNPERIODS&lo=5&to[TIME_PERIOD]=false)(검색일: 2025.3.1.)



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

발 행 인 조주현

편 집 인 이동주

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

0707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(신대방동 686-70)

전화: 02-707-9800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s://www.kosi.re.kr>

인 쇄 처 디플러스

-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